

‘투자보국’ 10년 결실… 미래에셋證, 업계 최초 순이익 1조

(분기 연결 기준)

영업익 전년비 297% 증가한 1.4조 스페이스X 등 혁신기업 투자 성과 인도·H·호주 중심 글로벌 확장 가속

2016년 KDB대우증권 인수를 통해 국내 최대 증권사로 도약한 미래에셋증권이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박현주 회장이 10년 가까이 추진해 온 글로벌 투자 전략과 자산관리(WM) 중심 성장 전략이 결실을 맺으며 국내 증권업계 최초로 분기 순이익 1조원을 돌파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1조19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증권업계에서 분기 순이익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영업이익은 1조37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7% 증가했고, 세전이익은 1조3576억원으로 292% 늘었다. 연 환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9%, 자기자본은 1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주가 역시 실적 기대를 선반영하며 연초 대비(YTD) 폭등했다. 12일 종가 기준 미래에셋증권 주가는 7만4300원으로 연초 대비 201.42%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단순한 증권주 밸리를 넘어 미래에셋증권의 독자적인 성장 스토리에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객 자산의 급증은 미래에셋증권의 사업 경쟁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



분기 말 기준 국내외 총 고객자산(AUM)은 660조원으로 3개월 만에 58조원 늘었다. 연금자산은 64조3000억원으로 6조5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고객이 직접 사업자를 선택하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은 36조8000억원으로 전 금융권 1위를 기록했다. 지난 10일 기준 AUM은 776조원, 연금자산은 74조원으로 확대되며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 해외법인·혁신투자가 만든 사상 최대 실적

해외 사업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국내 시장 의존도를 줄였다. 1분기 해외법인 세전이익은 2432억원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개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홍콩 법인은 813억원, 뉴욕 법인은 830억원의 세전이익을 올렸다.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주요 해외 거

점의 WM 고객자산은 78조원으로 늘었다.

투자 부문에서는 박 회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혁신기업 투자 전략이 빛을 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SpaceX) 등을 비롯한 글로벌 혁신기업 투자 성과를 바탕으로 1분기에만 8040억원의 평가이익을 거뒀다. 스페이스X와 xAI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향후 추가 이익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홍콩 상장기업 코너스톤 투자로 1560억원의 이익을 올리며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수익성을 확대했다.

박 회장은 2016년 KDB대우증권 인수 당시 ‘투자보국(投資報國)’을 내걸었다. 단순히 국내 최대 증권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자본시장의 자본을 세계 시장으로 확장해 국가와 고객의 부를 함께 키우겠다는 구상이었다.

브로커리지 중심의 전통적인 증권사 모델에서 벗어나 글로벌 투자와 자산관리, 연금, 대체투자를 아우르는 종합 투자 플랫폼으로 회사를 탈바꿈시키겠다는 장기 전략이 이때부터 본격화됐다.

이후 미래에셋증권은 해외 네트워크 확대와 선제적 투자로 차별화된 성장 기반을 구축했다. 2013년 인수한 포시즌스 호텔 시드니(Four Seasons Hotel Sydney)는 호텔과 고급 레지던스를 결합한 개발사업을 통해 최대 2조원 규모의 개발차익이 기대된다. 최근에는 일본과 호주 법인 설립, 홍콩 디지털자산 플랫폼 구축, 미국 현지 증권사 인수 검토 등 새로운 성장 축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시장의 거래대금 증감에 좌우되는 수익 구조를 넘어, 글로벌 자산과 네트워크 자체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구축해 온 셈이다.

◆ 인도·홍콩·미국…다음 10년을 여는 확장판

미래에셋증권의 성장 스토리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약 5800억원을 들여 인도 증권사 셰어칸(Sharekhan)을 인수한 미래에셋증권은 현지 톱5 증권사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젊은 인구 구조와 폭발적인 경제 성장, 중산층 확대가 맞물린 인도 시장을 차세대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최근에는 일본과 호주에 신규 해외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철수 이후 약 10년 만의 재진출이며,

호주는 세계 최대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인 슈퍼애뉴에이션을 겨냥하고 있다. 진출이 현실화되면 미래에셋증권의 법인 네트워크는 11개국으로 확대된다.

홍콩법인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로부터 디지털자산 리테일 라이선스를 확보했다. 오는 6월에는 주식·채권·디지털자산을 한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을 출시할 예정이다. 국내 증권사가 해외 현지에서 개인 대상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최초며, 시장에서는 미국 현지 증권사 인수가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미국·런던·홍콩 등 선진 시장에서는 ETF 유동성 공급자(LP) 사업을, 인도·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신흥 시장에서는 브로커리지와 WM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혁신기업 투자, 연금, 디지털자산을 결합해 단순 중개회사를 넘어 글로벌 투자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박 회장이 10년 전 던진 ‘투자보국’이라는 화두는 이제 하나의 철학을 넘어 실적과 주가, 고객자산으로 증명되고 있다. 국내 증권사 최초의 분기 순이익 1조원 돌파는 미래에셋증권이 다음 10년을 향해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SK하이닉스, 200만 기대 속 신중론 ‘솔솔’

증권사들 일제히 목표가 상향 일부는 하반기 모멘텀 둔화 우려

‘200만닉스’ 고지를 눈앞에 둔 SK하이닉스 주가 두고 몇몇 증권사에서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SK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주가를 각각 50만원, 300만원으로 제시하면서 고점 상단을 높였다. 국내 증권사 중 최고가다. 이날도 KB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기존 200만원에서 280만원까지 목표가를 끌어올렸으며, 앞서 미래에셋증권도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주가를 270만원으로 제시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실

적 전망치의 상향 속도가 주가 상승 속도를 앞서고 있다”며 “메모리 가격 상승 기조와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서버 디램(DRAM)과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수요 급증세는 2027년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270조원, 2027년에는 418조원을 예상했다.

반면 보수론은 하반기 모멘텀 둔화를 우려한다. 전날 키움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190만원으로 올려잡으면서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매수’에서 ‘아웃퍼폼(초과 달성)’으로 하향 조정했다. BNK투자증권도 지난달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했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70조원, 3분기는 75조원을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메모리 가격은 직전 분기 대비 한 자릿수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범용 메모리의 가격 급등 흐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60조2500억원으로 추가 증가가 예상된다”면서도 “작년부터 시작된 AI 사이클 후반부라는 점과 상대적으로 수익성 낮은 HBM 4 매출비중 확대 영향, 기존 서버 주문이 컸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 모멘텀을 둔화될 전망”이라고 짚었다.

이들 증권사의 보고서는 대부분 증권



SK하이닉스 전경.

사가 200만원을 넘어서는 목표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보고서라 눈길을 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1일까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 가운데 목표주가 ‘상향’ 의견은 3670건으로 전년 동기(1575건) 대비 133% 증가했다. 반면, 목표주가 ‘하향’ 의견은 718건으로 지난해 동기(1673건)보다 57% 감소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현대차·피지컬AI 투자 KB운용, 새 ETF 출시

AI 생태계 전반… 미래 성장성 초점

KB자산운용은 현대차그룹과 핵심 협력사에 집중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RISE 현대차고정피지컬AI ETF’를 12일 상장했다고 밝혔다. ‘RISE 현대차고정피지컬AI ETF’는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뿐 아니라 로봇·AI 전환 과정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주요 협력 기업들까지 함께 담아 피지컬 AI 생태계 전반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존 자동차 ETF와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워 내연기관 중심 자동차 산업 비중을 줄이는 한편 로봇·AI 소프트웨어·스마트팩토리 관련 비중을 확대해 미래 성장성에 초점을 맞췄다. 동시에 안정적인 실적과 재무구조를 갖춘 기업에 집중하면서 일반 로봇 테마형 ETF 대비 변동성을 줄였다.

기초지수는 ‘KEDI 현대차고정피지컬AI 지수’로, 현대차를 25% 고정 편입하고 피지컬 AI(자율주행·로봇·스마트공장자동화)와 유사도 점수가 높은 상위 14개 종목에 투자한다. 시가총액 가중방식을 적용하되 종목당 최대 비중은 15%로 제한해 특정 종목 쏠림을 완화했다.

/신하은 기자



“장부보다 미래”… 국내 대기업 시총, 공정자산 첫 역전

AI·반도체 훈풍에 제조업 부활

국내 50대 대기업집단의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공정자산을 넘어섰다. 기업이 보유한 자산 규모보다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과 성장 가능성에 시장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12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국내 50대 그룹의 시가총액은 2021년 1881조1575억원에서 올해

5403조2961억원으로 5년 만에 187.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정자산은 2161조4164억원에서 3264조784억원으로 51.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공정자산 대비 시가총액 비율은 2021년 0.87배에서 지난해 0.58배까지 하락했다가 올해 1.66배로 급등했다. 시장이 평가한 기업 가치가 장부상 자산 규모를 처음으로 웃돈 것이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상

징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021년에는 플랫폼과 인터넷 기업들이 높은 프리미엄을 받았지만, 올해는 조선·방산·반도체·원전 등 실물 산업 기반의 기업들이 시장의 중심에 섰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반도체와 조선업 호황이 맞물리면서 전통 제조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두산그룹에서나

타났다. 두산의 공정자산 대비 시가총액 비율은 2021년 0.56배에서 올해 4.39배로 50대 그룹 가운데 가장 높았다. 자산은 29조6593억원에서 30조9090억원으로 4.2%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시가총액은 16조5252억원에서 135조5961억원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 강세에 힘입어 자산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0.84배에서 3.33배로 뛰었다. 삼성그룹도 1.64배에서 3.07배로 상승했다. 효성과 HD현대 역시 각각 2.30배, 2.23배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허정윤 기자